

## “오락실 수사비 너무 많이 들어”

하루 10만원 기본... 경찰 고민

최근 성인 오락실과 PC방의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속을 맡은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단속반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오락실에서 돈을 주고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과 수사에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고 합법적으로 출시된 게임이어서 영업 사실만으로는 오락실 업주들을 제재할 수 없고 불법 개·변조나 불법 환전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장 적발과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단속반원이 카메라나 녹음기를 갖고 고객들 사이에 잠복해 게임을 계속하면서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당 투입 금액 위만 기준이 ‘1시간에 9만원’으로 돼 있고 소위 ‘예시’, ‘연타’ 등도 시간에 한 번 나오는 것이어서 한 번 단속을 나가면 하루에 10만원 쓰는 것은 금방”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사비가 모자란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불평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활동비와 부서 운영비를 쪼개 쓰는 것은 기본이고 일선 경찰서장들이 관공비 일부를 때 단속반원들에게 지급하는 일도 많다.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경찰은 최근 사행성 게임 단속에 사용할 30억원의 수사비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추가로 신청했으며, 우선 확보된 경찰 예산을 사행성 게임 집중단속에 사용키로 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 자치단체장 후보 도운 공무원들

## 벌금형 선고 잇따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후보를 도운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3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을 위해 홍보물을 발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시청 공보관 윤모(57)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180일 전부터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음에도 윤씨가 홍보물을 발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 후보를 화순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기획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화순군청 직원 정모(여·47·7급)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의 선고를 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이를 망각한 채 특정후보 편에서 선거비용을 제공하는 등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점에 비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266조 1항)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 완도 생일도에 ‘괴물’이 ?

## 백운산 흑염소 1년 새 20여마리 희생

## “밭자국 없고 수범 잔인” 공포 확산

## 주민들도 습격 당할까 밤 외출 꺼려

외판 섬 마을이 여름밤 ‘괴물’ 공포로 술렁이고 있다. 괴물은 밤마다 산 아래로 내려와 흑염소를 잡아먹고 사라진다. 아무도 정체를 보지는 못했다. 밭자국도 없다. 남은 것은 앙상한 뼈뿐.

완도군 생일면 서성리 황변하(57)씨는 23일 오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무섭게 들로 나갔다. 백운산(해발 482m) 밑에 있는 자신의 밭에 매어놓



23일 새벽 갈비뼈 부위만 뜯어먹힌 채 발견된 완도군 생일면 서성리 황변하(57)씨의 흑염소.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은 흑염소 3마리가 무사한지 보기 위해서였다. 경운기를 몰고 10여 분 만에 도착한 밭에는 뜯어먹다만 흑염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나머지 2마리는 도망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고삐가 풀려 인근 계곡에 숨어있었다.

“지가 새벽 두 시까지 지키지 않았으면 모두 잡혀 먹혔을 거요. 밭자국도 없고, 대채 먼 놈의 산짐승이다...”

강진 마량항이나 장흥 회진항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완도군 생일도 사람들이 밤마다 흑염소를 잡아먹고 사라지는 ‘괴물’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1년 새 20여 마리가 당했다. 방목한 흑염소까지 계산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훨씬 늘 것으로 생일면사무소 측은 보고 있다. 흑염소는 생일도 464가구 916명의 주민 가운데, 48가구에서 900여 마리나 키우는 짝퉁한 부업거리였다.

괴물과 정경준(53)씨도 “시중에 내가면 마리당 20만 원은 족히 받을 흑염소 두 마리를 지난 21일 잃었다”며 아쉬워했다. 밤새 먹어치웠는지 1마리는 고삐만 남아 빼도 찾을 수 없었다. 다른 1마리는 머리만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괴물은 처음에는 서성리 인근에서 출몰하다가, 최근 유촌리·금곡리 등 백운산 자락으로 사냥터(?)를 넓히고

있다. 하룻밤 새 염소 2~3마리를 해치우는 것으로 봐서 1마리는 아닐 듯 싶은데, 풀이 무성하게 자란 탓에 밭자국도 찾을 수 없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들개’라면 흑염소의 목을 공격할 텐데, 남아있는 사체에는 주로 배를 물어뜯은 흔적만 남아있어 공포감은 더하다.

한때 사냥개라도 풀어 백운산 일대를 뒤져볼까 생각해봤지만, 동백나무·후박나무는 물론 잡목까지 무성해 이 또한 여의치 못한 상황. 흑시 사람까지 습격할지 몰라 밤 마실 나가는 것도 삼가고 있다.

생일면사무소 김길호 농수산계장은 “아무도 괴물의 정체를 보지는 못했다”며 “흑시나 주민들을 습격할지 몰라 밤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 병원노사 교섭 난항

## 결렬땀 오늘 파업

병원 노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 CCMM 빌딩에서 산별교섭에 들어갔으나 임금 인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협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당초 1.8% 임금 인상안에서 4%까지 양보했고 노측도 기존에는 9.3% 인상을 주장하다 조정 과정에서 4% 중반 선이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4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12개 지부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병원노조 광주·전남본부부는 앞서 23일 오후 6시 기독교병원에서 파업 전야제를 가졌다.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간부들만이 파업에 참가하는 ‘경고파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전남본부에는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광주보훈·목포가톨릭·순천 성가톨릭병원 등 14개 병원·의료원 3천여명이 가입해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한국인이 중국서 음란 호스트바 운영



○...서울경찰청 외 사과는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인과 재중동포 남성을 고용, 호스트바를 운영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G호스트바 입주 김모(36)씨와 종업원 윤모(2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8명을 수배.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상하이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중국 여성과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69만16천위안(약 8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이 업소의 남자 종업원들은 여성용 한복을 입고 ‘나체쇼’를 하는 등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2월 말 영업 도중 중국 공안에 적발돼 입주 김씨는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종업원들은 15~30일의 구류를 산 뒤 강제 추방됐다.

/연합뉴스

## 강천수 광주시 유도회장 辭意

### 공금 유용 의혹 관련

### 광주 경실련, 수사 촉구

강천수(71) 광주시 유도회장이 광주시유도회의 공금 유용 의혹 보도(분보 18일자 6면)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23일 오후 시 유도회 사무실에서 분보 기자와 만나 “지난 40여년 동안 광주 유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내분으로 발생한 각종 사건으로 광주 유도회의 명예가 실추됨에 따라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오는 2007년 광주에서 열

리는 제 88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감하고 은퇴할 계획이었다”면서 “조직원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게 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광주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 유도회의 공금 유용 및 훈련비 착복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 경실련은 “광주시 유도회의 승단비 유용은 지역 체육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승단비 외에도 훈련비 착복 및 장비비 등 각종 운영비 유용 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은 물론 시 체육회 등 관련 기관은 엄정한 수사 및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청 장애인 담당 공무원

##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비하

### 대책위, 징계 요구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광주시청 공무원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에 따르면 광주시의 장애인 담당 신모 계장이 22일 오후 모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인화학교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청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자

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날 광주시청을 향한 방문, 시정의 공개 사과와 담당 공무원의 교체 등을 요구했다.

신 계장은 “행정 공무원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인사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가족의 건강을 위한

#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 Airpass 있습니다

신우 환기유니트

신우 환기유니트

신우 환기유니트

신우 환기유니트

신우 환기유니트

신우 환기유니트

신우 환기유니트

신우 환기유니트

신우 환기유니트

# 미국 한의대 유학생 모집

사회인력 취득하여 나라살림 카우자!

미국 한의대 유학생

미국 한의대 유학생

미국 한의대 유학생

미국 한의대 유학생

미국 한의대 유학생

미국 한의대 유학생

미국 한의대 유학생

미국 한의대 유학생

미국 한의대 유학생

## OPI 해외의약전문연수원 호남지부

문의처: 062323-3379 Fax) 062-222-5066 11층 | 010-8507-3060 www.opi.co.kr